19-03 2019. 07. 10

현안과 과제

2019년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2019년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201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및 이슈 ····· 2

3. 2019년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및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 ····· 7

4. 시사점 ····· 11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제연구실 : 신유란연구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정민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9년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 개 요

현재 국내 경기는 저점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증대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8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하반기에도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한-일 무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 수출 경기 부진 지속 등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이 하반기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201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및 이슈

(201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기업들은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약 54%에 이르는 응답자가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를 가장 우려되는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다.

2019년 **국내 경제는 '2%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대해 다수 기업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다수 기업이 수출 경기 둔화, 투자 위축,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지적**하였다.

(최근 경제 및 경영 이슈) 국내 기업들은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 혁신성장**이라는 응답이 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부동산 시장 및 가계 대출 규제, 통상 정책, 노동 정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 정책**이라는 응답이 21.0%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노동정책, 일자리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주 52시간 시행으로 기업 비용 부담 증가가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94%(다소 필요하다 48%, 반드시 필요하다 46%)가 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 시행으로 추가 고용 등 기업 비용 부담 증가(41.4%), 제품 출시 등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 하락(34.3%) 등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하반기 경영변수 중 국내 기업들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 분쟁 여파를 꼽았으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하반기 경영변수 중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미-중 무역 분쟁 여파를 지적한 기업이 4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산업경쟁력 약화 (15.8%),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11.9%), 산업안전보건법 및 상법 개정안 등의 입법 추진(10.9%) 등 순

으로 응답했다. 한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개혁이라고 지적한 기업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R&D투자 강화(23.2%), 노동 개혁(12.1%) 등 순으로 응답했다.

■ 2019년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및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42.2%의 기업들의 **상반기 경영실적은 연초에 예상했던 수준을 유지**했다.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주된 이유로 내수 호조를 언급했다. 반면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해 기업에 따라 체감 내수경기가 상이함을 시사했다.

(하반기 경영 계획) 주요 기업들은 2019년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다소 높은 경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한 기업의 61.4%가 '수익성 향상'을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로 둔다고 응답**했다. 하반기 경영목표에 대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대시킬 것을 계획했으며 설비투자, R&D, 신규고용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하반기 기업활동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수익성 향상(61.4%), 매출 증대(16.8%), 비상경영체제 유지(14.9%)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의 하반기 자금 사정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외 환경 전망)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는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환율은 상반기와 비슷한 1,100원 이상~1,200원 미만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응답이 71.6%로 가장 많았고 1,000원 이상~1,100원 미만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응답은 14.7%를 차지했으며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1,2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평균 유가는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인 50달러 이상~60달러 미만으로 예상한 기업은 54.9%, 60달러 이상~70달러 미만으로 예상한 기업은 38.2%를 차지했다.

(하반기 기업투자지수) 국내 주요 기업들의 **2019년 하반기 투자 종합지수는 2019년 상반기 대비 하락했으며, 특히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추세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투자의욕을 나타내는 심리지수는 상반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자 종합지수가 2019년 상반기 107.4p에서 2019년 하반기 106.5p로 하락했다. 산업별 지수를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지수가 160.0p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건설, 유통, 식음료, 조선 등 8개 산업군의 투자지수는 산업 평균을 하회했다.

■ 시사점

첫째,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틀 강화 노력이 요구되며 민간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경제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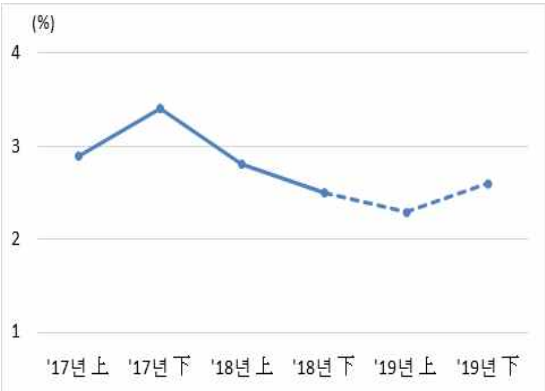
○ 현재 국내 경기는 저점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증대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8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

-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지만 경기 지수 측면에서는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음
  ·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 부문의 부진과 정부 기여도의 급락으로 전기대비 -0.4%의 역성장 시현
  · 반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의 하락 폭이 줄어들면서 경기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현

- 그러나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내수 부진, 수출 경기 둔화 등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해 2019년 국내 경제 성장세가 2018년보다 낮아질 전망
  · 하반기에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 둔화, 중국 경기 부진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경제성장률을 2.5%(2019년 6월 전망)로 2018년 2.7%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이는 국내 경기 부양 정책효과 및 2019년 하반기 수출 감소폭이 상반기보다 소폭 줄어들 것을 전제로 한 수치임

○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이 하반기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 현대경제연구원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9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문조사 개요 >

구 분	내 용
조사 기간	- 2019년 6월 17일~6월 21일(5일간)
조사 대상	- 국내 주요 110개 기업
조사 내용	-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 상반기 경영실적 / 하반기 계획 - 하반기 주요 정치·경제·경영 이슈 - 향후 투자 여건 전망
응답 기업	- 102개 기업(응답률 92.7%)

2. 201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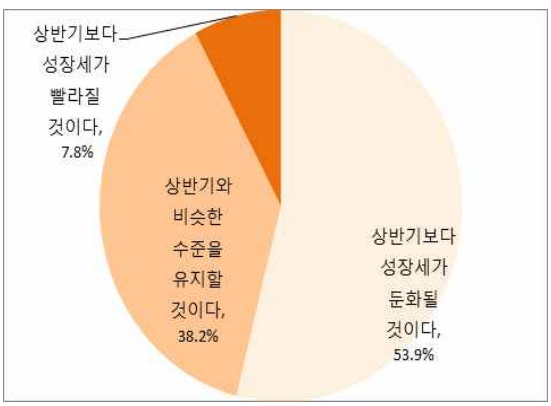
1) 201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기업들은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를 가장 우려되는 세계 경제 불안 요인으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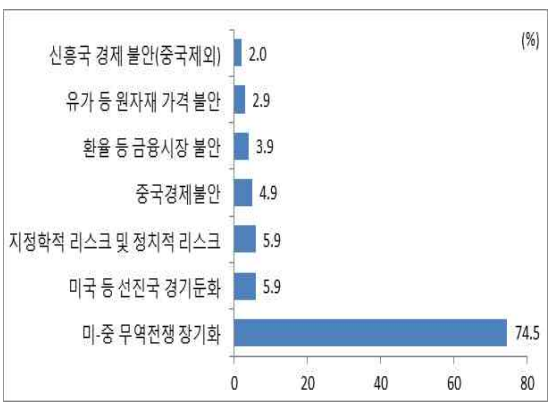
- **하반기 세계 경제** : 2019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세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대다수 기업이 응답
  · 2019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세는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53.9%로 가장 높았고,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8.2%,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7.8% 순으로 나타남

- **세계 경제 불안 요인** : 국내 다수의 기업은 2019년 하반기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라고 응답
  ·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를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한 기업은 7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그 다음으로 '미국 등 선진국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및 정치적 리스크'라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5.9%를 차지
  · 그 외 '중국 경제 불안'은 4.9%,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은 3.9%,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불안'은 2.9%, '신흥국 경제 불안(중국제외)'은 2.0% 순으로 응답

< 2019년 하반기 세계 경제 전망 >



< 2019년 하반기 세계 경제 불안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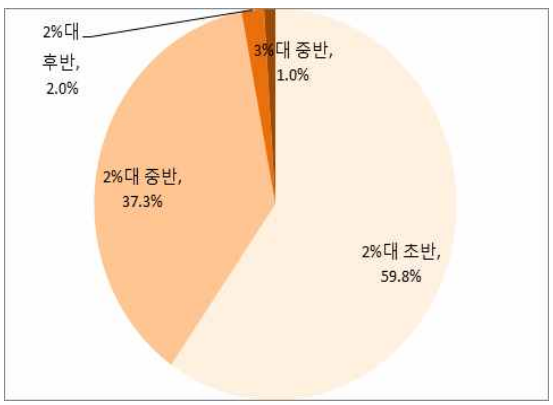
○ (국내 경제) 하반기 국내 경제는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수출 경기 둔화'가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주는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

- **하반기 국내 경제 :** 하반기에 국내 경제는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음
  · 2019년 하반기 국내 경제에 대해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56.9%),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36.3%),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6.9%) 순으로 기업이 응답
  · 또한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대해 응답 기업 중 77.2%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15.8%,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6.9%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중 59.8%가 '2%대 초반'으로 예상했고 그 외 '2%대 중반' 37.3%, '2%대 후반' 2.0%, '3%대 중반' 1.0% 순으로 응답

- **국내 경제 불안 요인 :** 2019년 하반기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수출 경기 둔화'라고 지적한 기업이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투자 위축' 16.8%,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16.3%, '소비부진'과 '민간주체 경제 심리 악화'가 각각 12.1%, '원/달러 변동성 확대' 6.8%, '고용 부진'과 '부동산경기침체' 각각 5.8%, '가계부채' 5.3% 순으로 나타남

- **국내 기준 금리 전망 :** 2019년 하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1회'라고 응답한 비중이 63.4%로 가장 많고, 그 외 '동결' 25.7%, '2회 이상 인하' 5.0%, '1회 인상' 5.9%로 나타남

<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 2019년 하반기 국내 경제 위협요인 >

2) 최근 경제 및 경영 이슈

○ (정부 정책의 평가) 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혁신성장'이며, 잘 못하고 있는 분야는 '규제 정책'이라고 응답

- **잘하고 있는 정부 정책 분야 :**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 국내 기업들은 '혁신성장'과 '부동산 시장 및 가계 대출 규제'라고 응답
  - '혁신성장'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23.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 및 가계 대출 규제'가 18.8%를 차지
  - 그 외 '통상 정책' 17.1%, '노동 정책' 12.8%, 산업 구조조정 정책' 10.3%, '규제 정책' 7.7%, '일자리 정책' 6.0%, '세제 정책' 4.3% 순으로 나타남

-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 분야 :** 정부 정책 중 가장 못 하는 분야로 국내 기업들은 '규제 정책'과 '노동 정책'이라고 응답
  - '규제 정책'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21.0%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노동 정책'이 20.4%를 차지
  - 그 외 '일자리 정책' 14.6%, '부동산 시장 및 가계 대출 규제' 12.7%, '혁신성장' 10.2%, '세제 정책' 8.3%, '산업 구조조정 정책' 7.6%, '통상 정책' 5.1%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잘하는 정부 정책 >

< 가장 잘 못하는 정부 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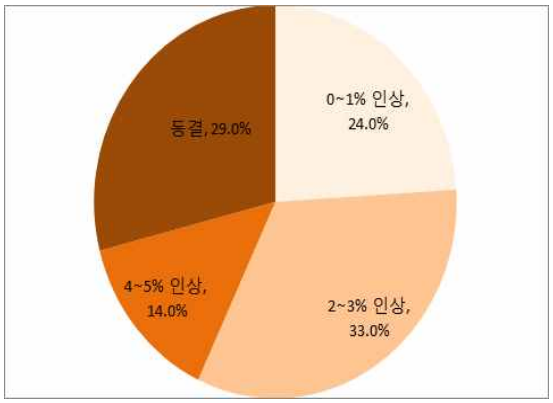
○ (노동 정책) 응답한 기업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 52시간 시행으로 기업 비용 부담 증가가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 응답기업 중 94.0%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인상속도에 대해 '다소 필요하다' 48.0%, '반드시 필요하다' 46.0%, '지금이 적정이다' 6.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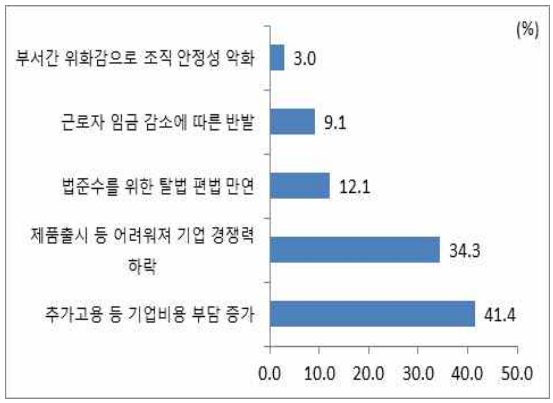
- **적정한 내년 최저 임금 인상폭 :** 내년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폭은 '2~3% 인상' 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 '동결' 29.0%, '0~1% 인상' 24.0%, '4~5% 인상' 14.0% 순으로 나타남

- **주당 52시간 도입에 대한 문제점 :** 주당 52시간 근로 시행으로 '추가 고용 등 기업 비용 부담 증가' 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 '제품 출시, 납기 준수 등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 하락' 34.3%, '법 준수를 위한 탈법·편법 만연' 12.1%, '근로자 임금 감소에 따른 반발' 9.1%, '부서 간 위화감으로 조직 안정성 약화' 3.0% 순으로 응답

< 적정한 내년 최저 임금 인상폭 >



<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 >



○ (경영 이슈) 국내 기업이 경영변수 중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 여파'라고 응답하였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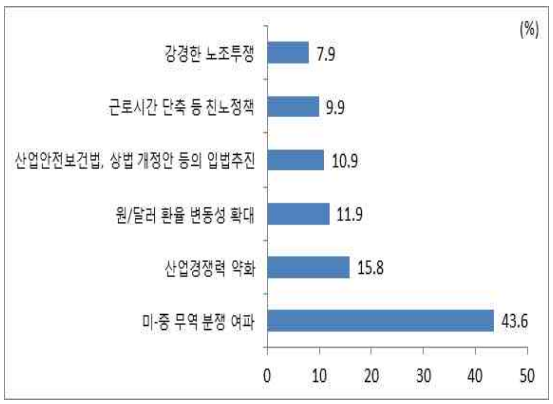
- **하반 기업 경영에 부담 요인** : 경영변수 중 가장 우려되는 요인은 '미-중 무역 전쟁 여파'라고 응답한 비중이 43.6% 가장 높음
  · 그 외 '산업경쟁력 약화' 15.8%,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11.9%, '산업안전보건법 및 상법 개정안 등의 입법 추진' 10.9%,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정책' 9.9%, '강경한 노조투쟁' 7.9% 순으로 응답

-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 : '약간 나빠질 것 같다' 66.7%, '크게 나빠질 것 같다' 19.6%, '별다른 영향 없다' 12.7%, '약간 호전될 거 같다' 1.0% 순으로 기업들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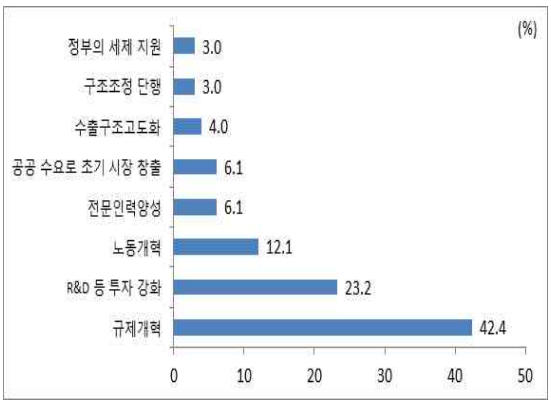
-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우려되는 요인** :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수출 감소 등 실적 악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43.6%로 가장 높음
  · 그 외 '연쇄적 보호주의 움직임' 31.7%, '정부의 기업 입장 중재 미흡' 10.9%, '원자재 조달 어려움' 8.9%, '해외 및 국내 공장 이전' 5.0% 순으로 응답

-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개혁' 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 'R&D 등 투자강화' 23.2%, '노동개혁' 12.1%,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수요로 초기 시장 창출'이 각각 6.1%, '수출구조 고도화' 4.0%, '구조조정 단행'과 '정부의 세제지원'이 각각 3.0% 순으로 나타남

< 기업들이 우려하는 하반기 이슈 >



<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



3. 2019년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및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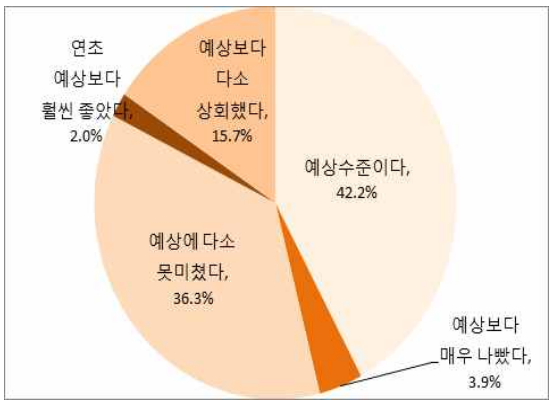
1)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 (상반기 경영실적) 기업들의 상반기 경영실적은 예상 수준만큼 유지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초에 설정한 예상 실적을 상회한 기업의 주요 원인은 내수 호조라고 응답한 반면,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기업의 주요 원인은 내수부진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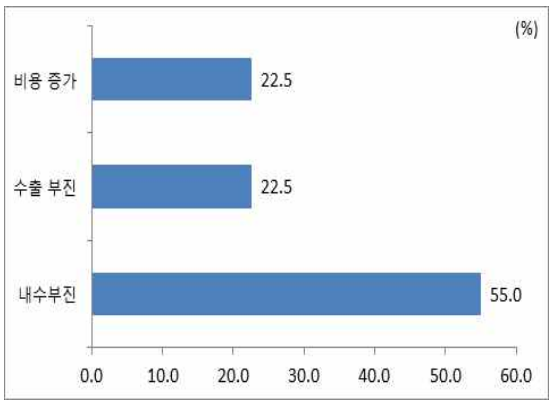
- **상반기 경영실적 :** 응답기업의 42.2%는 상반기 경영실적이 '예상 수준이다'라고 응답
  - '예상에 다소 못 미쳤다'(36.3%), '예상보다 매우 나빴다'(3.9%)고 응답하여 경영실적이 예상을 하회한 기업의 비중은 40.2%를 기록
  - 반면 '예상보다 다소 상회했다'(15.7%), '연초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2.0%)고 응답하여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상회한 기업의 비중이 17.7%로 나타남

- **실적이 예상을 상회 혹은 하회한 이유 :** 경영실적이 예상을 하회한 기업의 주요 원인은 내수 부진,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기업은 내수 호조 때문이라고 응답
  -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주된 이유는 '내수 부진'(55.0%), '비용 증가'(22.5%), '수출 부진'(22.5%) 순으로 응답
  -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이유는 '내수 호조(53.5%)', '비용절감(40.0%)', '수출 호조(6.7%)' 순으로 응답
  - 업종, 규모, 수출여부 등 기업 특성에 따라 체감 내수경기가 다름을 시사함

< 2019년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



<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 >



2) 하반기 경영 계획

○ (하반기 경영계획) 2019년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경영 목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소 상향조정한 반면 설비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의 투자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

- **하반기 경영목표** :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대시킬 것을 계획했으며 설비투자, R&D, 신규고용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
  -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상반기보다 1~5% 확대한다는 응답 기업이 각각 35.0%,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상반기와 동일 수준의 설비투자, R&D, 신규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65.3%, 54.6%, 66.7%를 기록

- **기업 활동 우선순위** : 응답 기업의 61.4%가 '수익성 향상'을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로 둔다고 응답
  - '매출 증대' 또한 16.8%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상경영체제 유지', '신사업 진출', '기타'가 각각 14.9%, 5.0%, 2.0%로 나타남

- **자금 사정** : 기업들의 하반기 자금 사정은 상반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80.2%)으로 예상한 비중이 가장 높았음
  - 그 외 '다소 악화될 것 같다' 13.9%, '크게 나빠질 것 같다' 1.0%로 나타난 반면 '호전될 것이다'는 5.0%를 차지

< 하반기 경영목표(상반기 대비) >

(%)

구 분	매출	설비투자	R&D	영업이익	신규고용
11% 이상 증가	10.0	1.1	1.0	6.0	1.0
6~10% 증가	18.0	4.2	4.1	11.0	4.2
1~5% 증가	35.0	20.0	33.0	38.0	21.9
0% (동일)	21.0	65.3	54.6	23.0	66.7
1~5% 감소	9.0	6.3	4.1	14.0	2.1
6~10% 감소	4.0	1.1	1.0	6.0	1.0
11% 이상 감소	3.0	2.1	2.1	2.0	3.1

주 : 음영 표시는 각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을 의미.

<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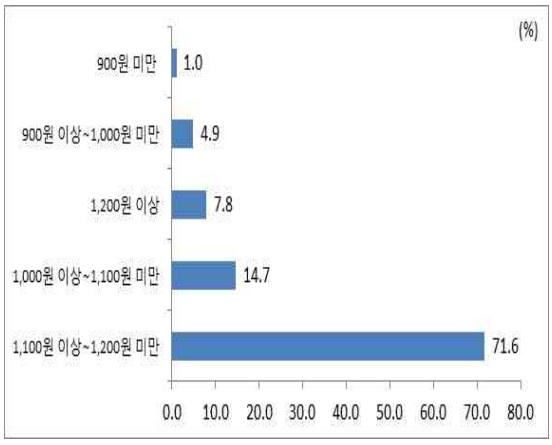
3) 하반기 대외 환경 전망

○ (대외 환경 전망)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는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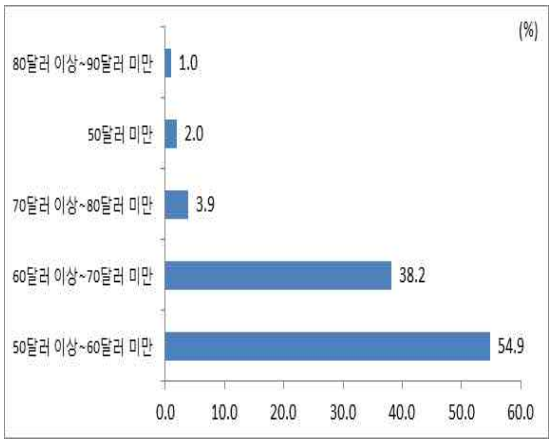
- **환율 전망 :** 환율은 상반기와 비슷한 '1,100원 이상~1,200원 미만'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1)]
  · 하반기 평균 환율이 '1,100원 이상~1,200원 미만'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1.6%로 가장 높고, '1,000원 이상~1,100원 미만' 14.7%, '1,200원 이상' 7.8%, '900원 이상~1,000원 미만' 4.9%, '900원 미만' 1.0%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기업들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100원 이상~1,200원 미만'이 51.6%, '1,000원 이상~1,100원 미만'이 34.4%, '900원 이상~1,000원 미만'이 9.7%, '900원 미만' 3.2%, '1,200원 이상'이 1.1% 순으로 나타남

- **유가 전망 :** 하반기 평균 유가는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인 '50달러 이상~60달러 미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2)]
  · 유가는 '50달러 이상~60달러 미만', 54.9%, '60달러 이상~70달러 미만' 38.2%, '70달러 이상~80달러 미만' 3.9%, '50달러 미만' 2.0%, '80달러 이상~90달러 미만' 1.0% 순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응답

< 2019년 하반기 환율 전망 >



< 2019년 하반기 유가 전망 >



1) 2019년 상반기 평균 환율은 1,143.5원/달러.
2) 2019년 상반기 평균 유가(WTI 기준)는 57.5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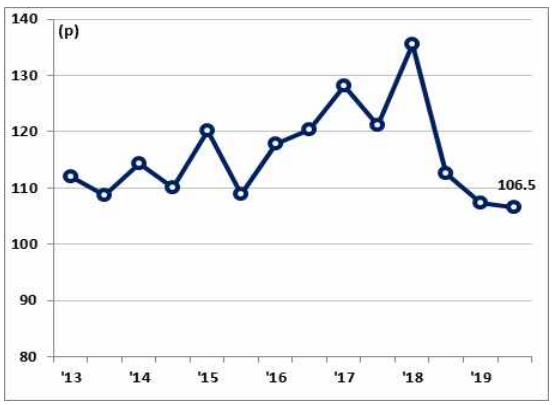
4) 하반기 기업투자지수

○ (평가) 국내 주요기업들의 2019년 하반기 투자 종합지수는 2019년 상반기 대비 하락했으며, 투자실적을 나타내는 추세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투자의욕을 나타내는 심리지수는 상반기 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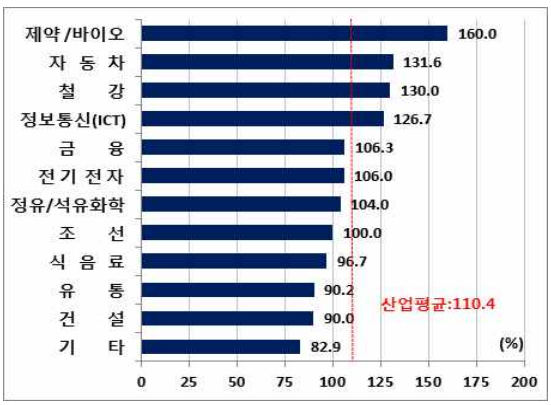
- **전산업** : 종합지수가 2019년 상반기 107.4p에서 2019년 하반기 106.5p로 소폭 하락
  - · 상반기 투자실적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기업 비중이 47.5%로 절반 수준을 하회하였고 하반기 투자 규모를 상반기보다 늘리겠다는 기업 비중은 35.4%에 불과
  - · 또한, 현재 투자여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기업은 72.4%로 나타났으며, 향후 투자여건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65.7%가 부정적으로 인식
  - · 한편 상반기 투자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업 비중이 60.6%이며, 향후 투자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기업 비중이 59.6%로, 2019년 상반기 56.7%보다 소폭 상승

- **산업별** :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지수가 160.0p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타 82.9p, 건설 90.0p, 유통 90.2p 등 8개 산업군의 투자지수는 산업 평균을 하회
  - · 제약/바이오 산업은 투자추세, 투자심리, 투자여건 부문에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

< 기업투자지수 추이 >



< 산업별 기업투자지수 >



주 : 최소 0, 최대 200이고, 기준값은 100.

4. 시사점

첫째,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틀 강화 노력이 요구되며 민간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다양한 감세 정책을 통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실물경제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장금리를 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요구

- 또한, 수출 경기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및 통상 현안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필요
  · 세계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주요 수출 지역에서의 통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부의 통상 정책,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

둘째,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 정부 성장전략의 중요한 한 축인 '혁신성장'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 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의 노력이 필요

-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산업정책 확립,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 확보 등을 통해 산업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
  ·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R&D의 개방형 혁신 확산, 폐쇄적 기업 문화의 전향적 개선, 지적 재산권 제도의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

-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고용 및 소비로 이어지는 고용창출력을 강화해 내수 경기 회복 기반을 조성

셋째, 경제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정부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 HRI

신 유 란 연 구 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정 민 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홍 유 림 연구위원 (2072-6243, ylhong@hri.co.kr)